

에베소서 강해 1 요약지

-하나님의 뜻, 우리의 정체성-

설교자 : 윤찬대 목사

본문:

"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"(엡 1:1)

1.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-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을 받았다

- 바울은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함.
- 그의 사역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,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(행 9:15, 갈 1:15-16).
- 우리의 구원과 사명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은혜임.
-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절대적 기준이며, 삶의 궁극적인 방향을 결정함.

★ 적용:

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,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함.

➡ 질문: 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?

2.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-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

- 바울은 자신을 "그리스도 예수의 사도"라고 소개하며, 사도직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주어진 것임을 밝힘.
-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, 그의 인생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됨(행 9:3-6).
-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,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.
- 바울은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했지만,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사는 자로 변화됨.

★ 적용:

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이며,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함.

➡ 질문: 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있는가?

3.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-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

-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‘성도’(ἅγιοι, hagioi)라고 부름→ 성도란 단순한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.
-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,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됨(출 19:6).
- 성도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되며,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(벧전 1:15-16).
- 거룩한 삶이란 율법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.

★ 적용:

성도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야 함.

➔ 질문: 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?

4.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 -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충성된 자들이다

- ‘신실한 자들’(πιστοίς, pistois)은 단순한 도덕적 신실함이 아니라,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의미.
- 신앙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되는 삶의 태도이며, 우리의 충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.
-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란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 아니라, 실제적인 순종과 실천을 포함함(요일 3:24).
-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,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.

★ 적용:

우리는 신앙을 단순한 교리로 머물게 하지 말고,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실천해야 함.

➔ 질문: 나는 신실한 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?

말씀을 정리하며...

- ✓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었으며,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온전해짐.
- ✓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.
- ✓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며,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해야 함.

★ 적용:

이번 한 주,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,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자.